

## 전치사 +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of which, in which, upon which, within which, of whom.... 이런거죠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라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볼까요?

Note taking is one of the activities **by which** students attempts to stay attentive, but it is also an aid to memory [전국연합]

- ▶ 노트필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임.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집중할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거임. 또 그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거임.

제가 직접 작성한 지문으로 하나 더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글의 맥락이 중요해서 지문 전체를 실었어요.

Some deny the need of aiding children in the third-world countries insisting that helping those in our community be the first priority. It sound 'merciful' or 'considerate' somehow. Their statement is, however, mere a shield **behind which** they attempts to hide from arrows of criticism that reveals their indifference about the matter pretending they are at least concerned about 'our children'. Yes, there are many children we have to care with warm heart. But the problems they suffer from are rarely matters of surviving. As I know, No child in this country dies of any of followings; malnutrition, malaria, drinking polluted water, AIDS, etc. [직접 작성;; 문법 틀리고 내용 엉망이어도 이해해주세요;;]

- ▶ 어떤 사람들은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뭐라 그러면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먼저 돕지” 이러면서,, 이 주장은 뭔가 자비롭게 들리기도 하고(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걱정하긴 하는거니까) 사려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그건 그냥 방패에 지나지 않는거임. 무슨 방패냐면 그 뒤에 숨어서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거라구요... 자신들이 (아동 복지에 완전 무관심하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들’ 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걸 슬쩍 내비치면서..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돌봐야할 아이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이 죽고사는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을 잃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을걸요? ; 영양실조, 말라리아, 오염된 물 마시기, 에이즈...

We will continue our study of the annelid by focusing on some of its internal details, **many of which** we have not seen in the animals we've studied thus far. Continue reading and coloring the structures as you encounter them. You should use lighter colors for the next parts because some of them are small.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中]

- ▶ 계속해서 환형동물의 내부 구조(장기)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들 중 대다수는 (many of which) 우리가 지금까지 (we've studied thus far) 공부했던 동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나머지 해석은 생략 :)

간혹 문법책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of which = whose, in which=where* 이렇게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관계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맨 뒤로 보내면 된다.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의 참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을 의미하는 in which 말고 “완전 감속이” 의 의미가 있는 inside which, ‘지금 막 들어오는 상태’의 이미지인 'into which' 이런 걸 한 낱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관계부사는 영어에 없죠!! 이런 ‘뒤안스’를 표현하려고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이 생긴거예요.

### 뜻없는 문법 특강 1 : Whom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whom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다. 이 부분이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먼저 whom 이 뭘지, 목적격은 뭐고 주격은 뭘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whom do you love? 에서 [알고 싶은 것=whom]

You love whom. 이렇게 고치면 [알고 싶은 것=you 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누구’가 구체적인 대상 즉 ‘대명사’ 이자 또 동시에 의문사고, 그게 또 형서문처럼 바꾼 문장에서 동사 lov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인거예요. 목적격은 주격으로 쓰는 who 와 구별하기 위해서 whom 으로 쓰기로 약속한거구요.. 그러니까 의문사, 대명사, 관계사 이 세 가지가 그냥 한 가족인거예요. 이게 괜히 이름을 붙여놔서 더 헷갈린다니까요.

who is he?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고싶은 것 = who‘누구’]

he is who. 이렇게 고치면 그 ‘누구’가 ‘주격 보어’가 되죠. 그래서 ‘주격’인 who를 쓰는거예요.

is도 동산데 who가 목적어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텐데요.. 일반동사와 be동사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죠!!

he is my daddy.에서 daddy 는 ‘주격보어’ 라고 합니다. 주어+곧 주격 보어+주격 보어가 곧 주어인 상태 인거죠.. (주어=주격보어)....

전치사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즉 “명사”라구요,, 그 자체로 목적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에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을 쓴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과 혼동하면 안돼요!!

She is the girl whom I used to love.

This is the boy whom we ran over yesterday night in the mall.

여기서는 각각 동사 love, ran over 의 목적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을 쓴거예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하는거 아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된건지 아시겠죠? :)

예문들을 봅시다.

orbi재수학원 has around 500 students many of whom got a high score on last year's 수능. [직접 작문한 문장 ㅋㅋ]

- ▶ ‘오르비 재수학원에는 대략 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의 많은 학생들이 작년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ince July 1966, the Abbey has been located at 26 Lower Abbey Street, Dublin. In its early years, the theatr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riters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many of whom** involved in its founding. The Abbey served as a nursery for many of the leading Irish playwrights and actor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William Butler, Yeats, Sean O'Casey and John Millington Synge. [2012 종로학원 핵심체크 13회 #1]

## 어순의 배열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독해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말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읽어나가는 동시에 영어의 어순에 맞게 지독지독 해야한다는 걸 모든 수험생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 말스러운’ 순서로 배열되어있기를 예상하면서 읽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십수년간 한국어를 써오면서 굳어진 사고방식을 살짝 깨주면 독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 나오 문장들은 저와 제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장들입니다. 이 책에 나오 문장들을 반복해서 눈으로 읽는 훈련을 하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속발음 습관이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TTT 제가 그랬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각종 도치, 목적어의 위치 변화, 여러 유형의 삽입형태(부사구, comma-comma 사이의 표현)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배열된 문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This is not a good excuse, because by the same rule he may go through any house in Edinburgh, and do what he thinks proper to be done without the owner's consent." [2011 수능특강 p14 #6]

- 이건 들어줄 만한 변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라면 저 사람을 에딘버러에 있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는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인공의 합의도 없이 막 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사구 by the same rule 가 because 바로 뒤에 나와서 해석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because 뒤에 곧바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독해 속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명구를 비롯한 부사 표현이 항상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합니다.

It's easy to see plagiarism when a student hands in a paper written by someone else. In fact, that student is submitting as his or her own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2011 수능완성 실전편 1회 #46]

that student is submitting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as his or her own. 이라고 쓰여있었다면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쉬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맨 마지막에 몰려있었지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사실 남의 지적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학생은 사실 자신의 것으로서 남의 지적 재산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걸 뭔가 어색하죠..

We can assume that in interacting with patients, friendly doctors are more likely than dominant doctors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 feelings, and expectations the patients have about themselves, their illnesses, and their doctors. [2011 수능완성 유형편 p.33 #4]

friendly doctors are more likely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 feelings, (중략) and their doctors than dominant doctors. 인데 동사 take into account 의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목적어 앞에 쓴 것입니다.

Although today, child welfare servic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often provide care to children in need, none of these institutions has as its first priority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2011수능완성 유형편 p.41 #4]

의미상 한 박자 쉬는 부분; 화제를 여는 문장(부사절), 해결하는 문장 구별하기(완전한문장)

접속사 Although 를 보는 순간 “무엇이 이러저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는 “화제를 여는 문장”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잘 안보이고 comma comma 가 보이죠? Although 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할 과정을 잘 거쳤다면 복잡하게 나열된 낱말들에서 뼈대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child welfare servic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이만큼 전체가 Although 가 이끄는 “여는 문장”의 주어라는데 보이시나요? 그 뒤에 나오는 provide 가 동사입니다. 이어서 in need, 이렇게 여는 문장이 끝나게 되구요 공이어 나오는 none of these~ 여기가 달는 문장인 것이죠. 그런데 달는 문장 안에서 또 어슨의 배열이 낫서네요. none of these institutions has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as its first priority). 이렇게 동사 has 와 목적어 the delivery~ 사이에 as로 시작하는 전명구가 끼어 들어가 있어서 독해의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동사 뒤에 곧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상대어구가 나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전명구를 비롯한 부사 표현이 목적어의 앞으로 당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물론 자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가 쓰인 경우와 충돌하면 안되지!!**

You might think that with such extreme variations in habitat, fishes would be difficult to characterize.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 ▶ that 다음에 갑자기 with가 나와서 당황했던 문장입니다.
- ▶ 전명구 with such extreme variations in habitat 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오 겁니다.

If we are made to live in a small cottage and bend to the rule of an aristocrat occupying a castle, and yet we observe that our equals all live exactly as we do, then our condition will seem normal. If, however, we have a pleasant home and a comfortable job but learn through attendance at a school reunion that some of our old friends now reside in houses grander than ours and have more enticing occupations, we are likely to return home lamenting misfortune.

[2011 수능특강 p91 #3]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as the urban middle class grew in size, middle-class families began to regard their children less as objects of utility and more as emerging people who enhance their parents' sense of self. Most mothers today give as their primary reason for wanting children their own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 [2011 수능완성 유형편 p65 #6]

## 의미상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에 comma(,)가 없다!

영어로 쓰여진 글에서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에는 필자의 재량껏 comma를 써서 심리적으랴? 한 박자 천천히 쉬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comma를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필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박자 쉼 곳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주욱 읽어다보면 문장의 구조를 완전히 놓쳐서 의미따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n early human history, life was short, and in order to reproduce the human group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2011 EBS 영어독해연습 II p.8]

### 부사구 표현

의미상 한번 쉬어가야 하는 곳을 in order to reproduce the human group ", " 여기입니다. 부사구가 끝나는 부분이죠.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의 대부분이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부사절을 화제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할 때, ~를 위해서, ~한다면, 등등,,, 이렇게 화제가 열린 후에는 ~이다, ~해야한다. ~한다,,, 이런 완전한 문장으로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위의 문장에서는 in order to 가 이끄는 부사절이 화제를 여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절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이 열린 화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화제를 여는 부사구/절 뒤에 곧바로 해결문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사, 의문사 등을 통해 문장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위의 문장을 읽을 때 the human group (where)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 " [해결문장]. 이런 구조로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그 위에 해결문장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many children~이 관계대명사 where 가 생각될 또다른 수식어가 아니라 해결문장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위의 사고과정은 정말 0.5초도 안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해낸 판단입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Yet of the three factors environmentalists often point to a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 population, technology, and consumption - consumption seems to get the least attention. [2010 종로 핵심체크 7월 #2]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놓치면 안되는 표현, 자동사+전치사

- - 이걸 앞에서 언급한 three factors 를 의미합니다. 인구, 기술, 소비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세 가지 요인들이라네요.

- population, technology, and consumption - ", " 여기가 바로 의미상 한 박자 쉬어가야 할 부분인거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화제를 여는 부사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해결문장이 오게 되죠.

Of 가 “~의” 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에서” 로 해석해보다!!

among 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of 앞에 “무엇무엇의 무엇”에서 뒤의 ‘무엇’ 에 해당될 명사 상당어구가 없는 경우이죠. 위의 문장처럼 미묘한 뜻을 전달하는 yet 과 같은 부사만 있거나

Of all the EBS radio shows, **임이** **듣이는 영어** is especially geared towards helping Koreans speak better English. [EBS 라디오 ‘임이 듣이는 영어’ 부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놓치면 안되는 표현, 자동사+전치사

이렇게 of 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반드시 be 동사와 함께 생각된다!

consumption (which) seems to get the least attention. 이렇게 which 가 생략된다고 착각해서 “가장 적게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consumption,,”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진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건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완전 어처구니없는 실수이지만 가끔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 attention. 으로 문장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렇게 주절이 아닌 또다를 수식절로 생각하는게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서 달랑 생각되는건 있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동사 seems 가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기 어렵지만 과거시제인 경우 진짜 동사가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과거 분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